KP케미칼 매각협상 "백지화"

채권단-영안모자 인수협상 결렬 … 영안모자는 계속 관심

고합에서 분리된 KP케미칼에 대한 매각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추진된다.

KP케미칼 채권단은 9월23일 영안모자와의 매각협상에서 수용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매각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국내외 화학섬유·석유화학기업, 투자펀드 등 14사를 대상으로 인수를 위한 자산실사 의향서 제출 의뢰서를 발송하는 등 마케팅에 들어갔다. 다시 추진하는 매각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2002년 말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영안모자는 자산실사를 기초로 채권단에 인수제안서를 제시하면서 인수합의 후 드러난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책임져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채권단은 영안모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였던 영안모자와의 협상은 백지화됐다.

채권단은 영안모자에도 참여를 재차 요청한 상태이며 영안모자도 이에 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결코 인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10월9일까지 2차 인수의향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안모자와의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3년9개월 간 총 2조7982억원을 들인 고합과 KP케미칼 구조조정 작업은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1차 매각작업에도 국내외기업들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던 만큼 재매각을 추진하더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2년 7월 마감한 인수의향서 접수에는 국내외를 통틀어 영안모자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기업 2곳이 참여했다. 그나마 2개 기업이 제시한 가격이 턱없이 낮아 채권단은 그 동안 영안모자와만 협상을 전개해왔다.

다만, KP케미칼의 부채비율이 157%로 건실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Bottle용 칩(SSP) 등의 시황이 최근 개선되고 있어 매각가격에 따라서는 성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KP케미칼은 고합의 우량사업 분야만을 분리해 2001년 12월 설립됐으며, 2002년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에 매출 5213억원, 영업이익 392억원, 당기순이익 342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최근 주력제품의 시황개선에 따라 일부제품에 대해 생산시설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욕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KP케미칼은 우리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전체 지분 가운데 98.05%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기 정상화해 2002년 안으로 마무리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 졸업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안모자는 최근 대우자동차의 부산 버스공장과 중국 구이린(桂林) 대우버스를 1400억원에 인수하기로 대우차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경영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동차·화섬원료 부문을 강화해 사업을 3개 부문으로 재편하는 구상 아래 고합에서 분리된 KP케미칼 인수를 추진해 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3>